

□ 인터뷰 - 환경운동연합
김종열 정책부장

국가 부의 척도
이제는 "환경"



“환경정책을 제대로 방관하다가 IMF 위기 이상의 타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위기를 경고하는 김종열 정책부장. 환경파괴가 자행되는 곳이면 전국 구석구석을 다니다지 않고 찾아가는 그에게서 우리나라 환경 경쟁력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안을 들어보았다.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보호 협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작년 12월 일본에서 각국의 공해 물질 생산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열렸다. 이러한 조약은 지구촌 질서와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환경 경쟁력에 비해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OECD 가입국들에 비교한다면 최하 위급이다. 정부와 기업도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 정부 모두 구체적인 대안은 미비하고 단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환경개선을 등한시 하고 있다.

환경경쟁력을 갖기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성은 일본의 3분의 1수준임을 감안하여 에너지 사용에 거품을 빼는 것이 절실하다. 많은 전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비효율적인 제철, 조선 등의 산업은 대표적인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기업은 이 같은 산업을 자체 하고 반도체 개발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력해야 한다.

환경대란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IMF의 경제위기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가 환경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눈 앞의 경제위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인목을 갖고 환경을 우선시하는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은 에너지 사용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전등이나 휴지를 아끼는 등의 작은 실천으로 나미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수원 기자>

□ 우리나라 환경경쟁력의 현주소

친환경적 전략으로 21C 개척하라

선진국, 무역장벽의 도구로 환경정책 이용 가능성

윤 근 혁
(자유기고가)

IMF시대, '경제위기'라고 한다. 온 국민의 관심은 온통 경제문제에 쏠려있는 듯하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21세기에 가장 먼저 맞닥뜨릴 가장 심각하고도 확실한 위기는 완전히 잊혀지고 있다. 그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환경파괴'에서 비롯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나 고실업률, 전쟁, 남북통일 등은 확실하게 앞날을 내다보기 어렵지만 환경은 꾸준히 악화되면서 그 건강도와 징후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이제는 환경이다.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인간이 에너지 고갈과 각종 환경오염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면서, 환경은 21세기를 앞둔 지구촌의 또 다른 화두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보전에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상당수가 환경규제 실효성이 낮으며 정부의 환경정책에 불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김중기)이 지난 해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국민 1천5백명과 2백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기업의식조사'를 한 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이 느낀 제환경오염도를 보면 94.2%(작년은 89.8%)가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으



▲ 제환경오염도 1순위의 수질오염, 사진은 시화호 폐수 방류 금지를 위한 집회 현장

며 부문별 심각도는 수질오염 94.9%, 쓰레기처리문제 93.9%, 대기오염 92.1%, 자연녹지·생태계파괴 87.7% 등의 순이었다.

기업의 환경노력에 대해 70.2%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국내 기업의 환경보전 수준은 낙제점수(50점)에 머무르는 평균 58.8점에 그쳐 낮은 평가를 내렸다.

IMF시대, 기업의 자구노력 가운데 하나는 이 '환경을 우선하는 경영'이다. 좋은 제품을 그저 값싸게 만들어 팔기만 했던 기업들에게도 앞으로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있는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상실, 경쟁대열에서 낙오되기 쉽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마인드를 우선 고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98년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출범에 따른 비관세 무역장벽의 부상으로 각국이 환경보호란 명분아래 환경을 무역규제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환경경쟁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우선 정부와 기업이 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관련 투자를 늘리는 데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 또는 가치관의 전환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대규모 생산과 대량 소비가 발전과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기업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항상 정치·경제·사회관계 속에 얽혀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기존의 법과 제도, 재화의 낭비구조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력에 맞서 정부와 기업의 결정을 뒤바꾸는 것은 강력한 시민단체나 언론으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승용차를 보면 사회적 지위를 떠돌리는 사람이 아직 훨씬 더 많다. 그것이 일으키는 대기오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때 비로소 환경문제의 해법은 발견될 것이다.

□ 학생운동 대토론회를 다녀와서

'창조를 위한 변혁'으로 탈바꿈하길



▲ 지난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학생운동 대토론회

"싸우면서 알아간다고들 하는데 학생운동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파쇼와 싸우면서 그와 동일한 질서를 구축하고, 학생운동일부에서 보여지는 '폭력성, 비민주성' 등은 결코 답지 않아야 할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지난 16일 오후 4시, 서울대에서 열린 '학생운동 위기 극복과 그 전망 모색'을 위한 학생운동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총학생회 주최로 각 대학 총학생회(총학) 정책담당자들과 약 2백여명의 청중이 참

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각 대학 총학 대표들의 발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중론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지금껏 학생운동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 해결방안이다. "학생운동의 방향을 과거의 낙후된 시대인식을 답습하고 있어 한층련 운동의 정체성을 고착화 시켰다"며 "한층련 강령을 좀더 근본적으로 변혁하여 개정할 것과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조직과 지도부의 구성"을 요청하였다. 둘째는 대중속에 자리잡지 못하는 학생운동의 한계 극복과 그에 따른 구체적 해결방안의 모색이다. "한층련의 비민주적인 운영은 소수가 다수의 의견에 철저하게 복속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사상과 의견을 '종파'로 매도하고,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긴

강 단 사 론

낭비에 대하여

낭비하지 않는 것을 '경제적'이라 한다. 사실,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연의 변화 보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낭비하는 법이 없다. 골프채를 돌려매고 나가서 사치품을 사들고 들어오는 해외여행도 낭비이고, 나라 살림은 뒷전으로 미루고 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움질하는 정치행태도 낭비이고, 도로를 포장한 다음에 전선줄을 묻는 것도 낭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낭비는 능력의 낭비, 인생의 낭비이다. 사실, 재산의 낭비는 어느 날엔가 복귀될 수 있지만, 젊음은 복귀될 수가 없다.

젊은 시절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젊은이의 능력은 소실되고 만다. 그렇다면, 정치인이나 사회역자의 낭비보다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용납하는 대학이 더 큰 낭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부한다는 것은 행운이나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며, 노력하지 않으면 능력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게으름이며, 불의를 조장하는 것이다. 대학은 행운을 잡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행운을 버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다. 대학의 하느님은 종교의 하느님이 아니다. 대학은 노력하지 않는 학생을 용서하는 곳이 아니라, 용납하지 않는 곳이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을 용납하는 대학은 낭비의 온상이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사회는 정의가 없는 사회이다. 대학에는 탐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탐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노력의 가치는 효과이다. 노력에도 낭비가 있다. 노력만 하면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도 모르면서 노력만하는 것은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인생과 사회에는 수 많은 종류의 목적이

있고, 노력의 가치는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다. 노력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노력의 재료와 방법이 달라진다. 수 많은 목적과 수 많은 방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사회이고, 대학이 바로 그런 곳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소수를 말살하려는 다수의 독재를 용납하지는 않는다. 소수를 존중할 줄 모르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학

(uni-versity)은 다양성(diversity)이 합쳐지는(uni-ty) 곳이다.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나와 너보다 더 다른 동시보다 더 유사하다. 이런 것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고 대학이 추구하는 것이다. 철학을 개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성되고, 교육부의 관리가 되고, 자문위원이 되어서, 사회에 유용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실하에 교육정책과 제도를 휘두르면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무시하고, 효율성이라는 구실하에 소수를 말살하면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대학인의 능력개발을 방해하고 있다. 철학도 이런 무지한 제도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철학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알지도 없고, 철학을 하는데 적절한 노력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않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도 없다. 이들은 철학자가 없는 사회, 철학이 없는 대학, 철학이 없는 인생을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대학인들의 침묵과 순종 때문에 생겨난 무지정인 듯 하다. 이제 대학인들은 자연으로부터 서두르지 않는 방법을 배우면서, 서서히 저항의 기치기를 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갈등은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증법적인 발전의 동력임에는 틀림 없다.



남 기 영
(철학과 교수)

대중들과의 괴리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폭넓은 대중들의 의견수렴과 한층련 정책사항 등의 공개화, 낙서판의 활용 등을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중대 총학의 간부는 "새로운 운동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제 더 이상 '창조를 위한 파괴'는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창조를 위한 창조'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사회단신

안기부 규탄 대회 개최

김형찬 대법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내국동 안기부 청사 정문앞에서 "복종조작 인권유린 안기부 규탄 및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원 처벌촉구대회"를 개최한다.

Click now!
클릭하는 순간 짜릿하게 감전된다.

짜릿한 인터넷 서비스, 채널i

PC통신으로 즐겼던 채팅의 즐거움은 그대로,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더했습니다.



LG가 만든 짜릿한 인터넷 서비스, 채널i
초보자도 OK, 누구나 짜릿한 맛에 빠져든다!
민족도 +α, 무엇이든 짜릿한 정보가 가득하다!
유쾌지수 100%, 언제든 짜릿한 재미를 느낀다!
시속 200km, 어디서나 짜릿한 스피드를 즐긴다!

채널i에 가입하는 3가지 방법

1. 채널i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02-369-9999)로 보낸다.
2. 채널i 홈페이지(http://www.channeli.net)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한다.
3. 고객센터(080-50-01434, 02-369-9900)로 전화를 걸어 신청한다.

* 대법원은 5월 17일 채널i가 도는 패킷전송비, 5월 상용서비스는 채널i 무료 사용 특권을 드린다.

인터넷 전문채널
Channel i

인터넷 전문채널
http://www.channeli.net
전화접속번호: 01434 고객센터: 080-50-01434

뉴스투데이

Go! 인터넷

넷스쿨

비즈니스센터

채테크 프라자

리빙업

레저타임

열린사회

어뮤즈파크

문화DMZ

게임공국

조이볼

통신마당

네트워크서비스